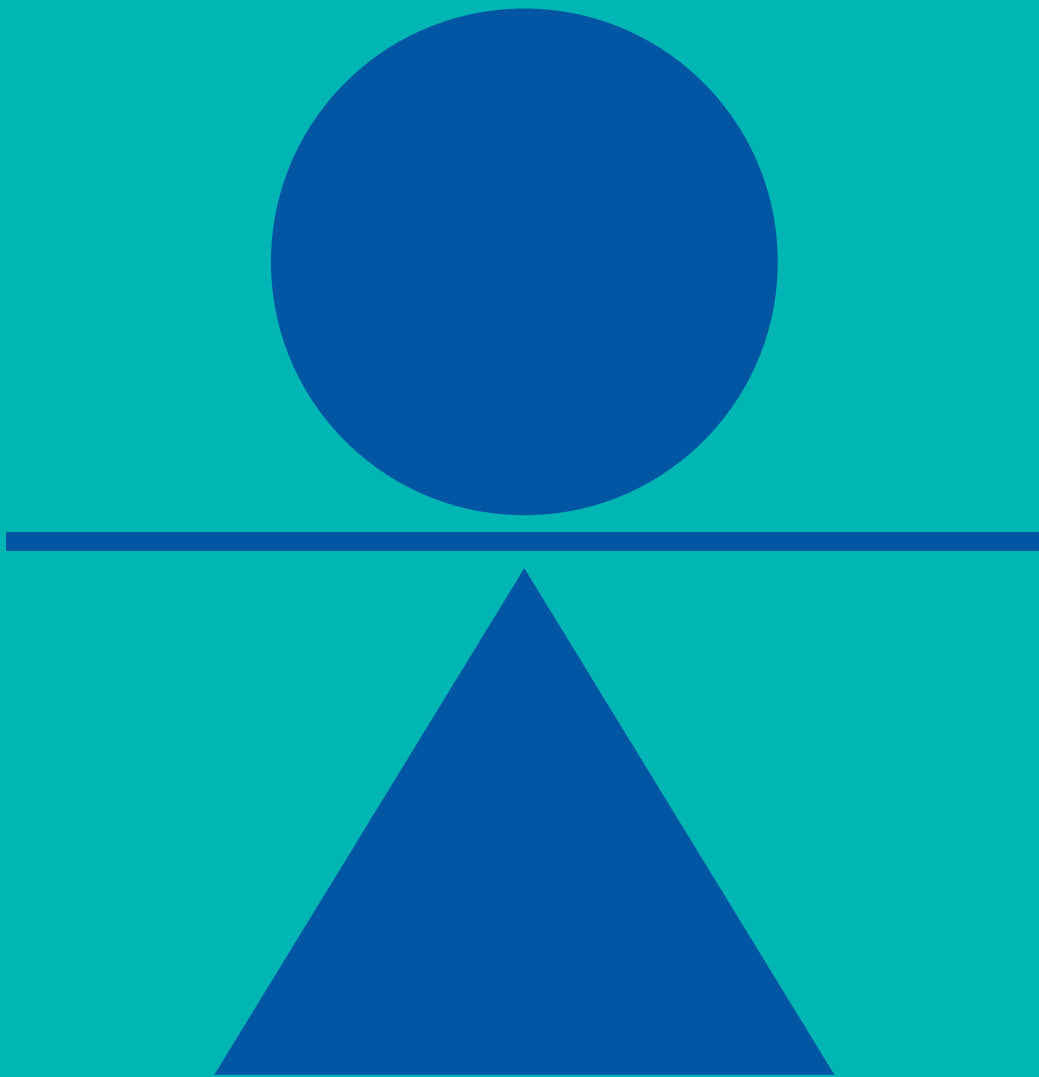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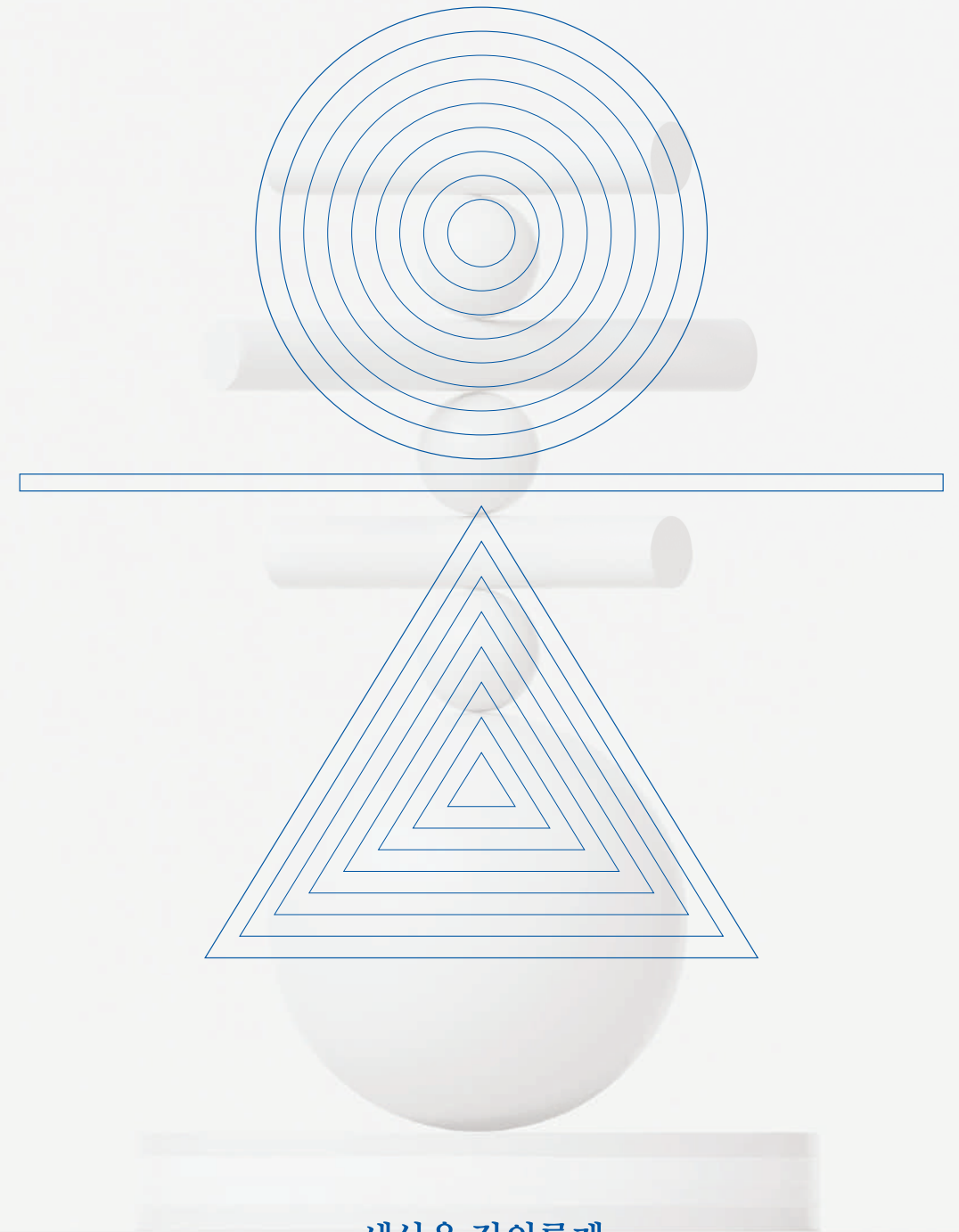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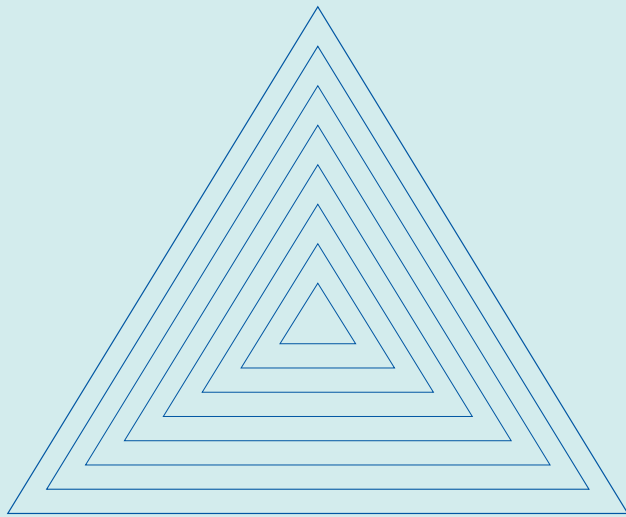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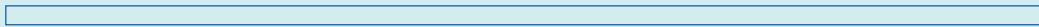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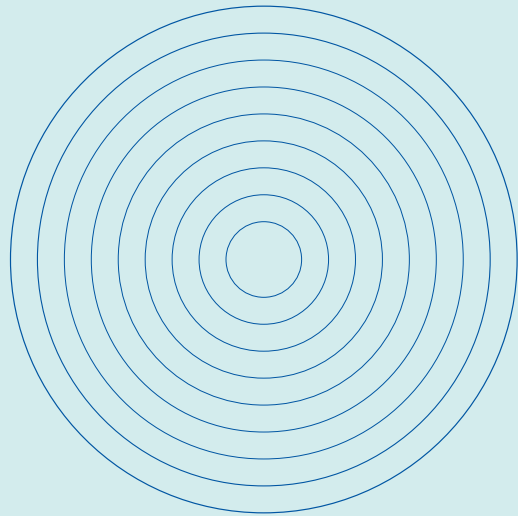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투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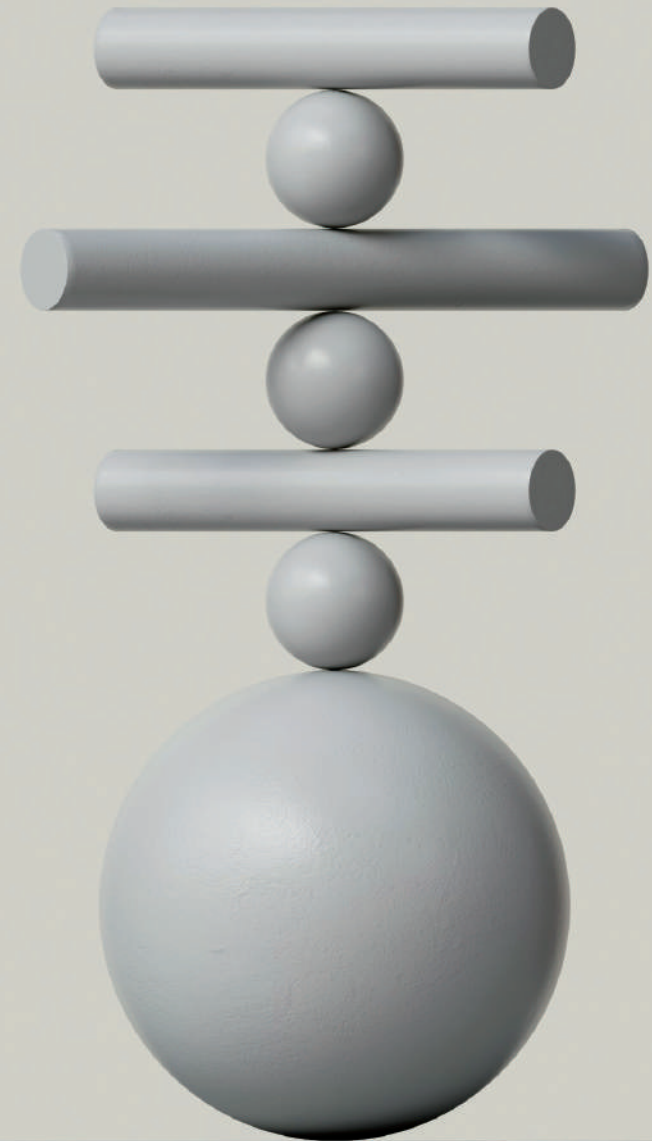
FAIR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투명함



이름의장 을상이
함방쿠 니하





12



18



30



42

세아웹진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공유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연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 황수진 대리 suj.in.hwang@seah.co.kr / 02-6970-0094

발행일 2025년 8월 20일(통권 418호)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발행인 김수호

사진 Studio KENN

발행처 세아홀딩스

ISSN 2636-178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4

06

세아

모든 정의는 용기 위에 세워진다
- 벤자민 디즈레일리

08

세상

세상과 기업을 아름답게
하는 정의(正義)

12

세아인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세아홀딩스 법무팀

18

뉴스룸 1

세아베스틸,
재생에너지 전환 본격화
- 한화큐셀과 20년 장기 PPA 체결

20

뉴스룸 2

세아그룹 브랜드 필름
‘I’m STEEL Here’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수상

22

뉴스룸 3

따뜻한 식사 한 끼,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
-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한 끼 식사 선물’ 캠페인

24

함께의 가치

고난도 진입장벽을 넘어
신시장을 개척하다
- 세아제강 업적상 은상 수상팀

30

부캐의 발견

일상을 비트 있게 만드는 두드림
- 세아씨엠 변화관리팀 박세근 팀장

34

맛의 추억은 철을 타고

휴게소 간판 메뉴
- 호두과자

38

세계 속 세아

품질 경영, 인재 중심 경영으로
실현하는 동남아 최고의
종합 강관 제조사
- SeAH Steel Vina

42

자연이 고마워서

동해의 푸른 품,
울진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 후정해수욕장, 울진해안도로, 성류굴

48

세아뉴스 & 사우동정

그룹 내 주요 행사 및
사우동정 소식

50

책 읽는 세아

책 제목: 결국엔 정직함이 이긴다
- 세아베스틸 생산혁신팀 전호성 팀장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한 문장

모든 정의는 용기 위에 세워진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Benjamin Disraeli, 1st Earl of Beaconsfield)

벤자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19세기 영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평범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수많은 실패와 비판 속에서도
끝까지 정치에 도전해 마침내 영국의 수상 자리에 올랐다.

그는 정의롭고 원칙 있는 정치는 반드시 '용기'를 동반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
사회와 국가, 조직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와 원칙은
불편함과 위기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안일하게 넘긴다면, 진정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믿음이었다.

실제로 디즈레일리는 정치적 타협과 기득권에 맞서며,
때로는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영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품의 품질과 납기, 무엇보다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업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정의'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약속을 이행하는 일.
때로는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기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와 환경, 그리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디즈레일리가 말한 '용기 있는 정의'의 현대적 실천일 것이다.

세상과 기업을 아름답게 하는 정의(正義)

JUS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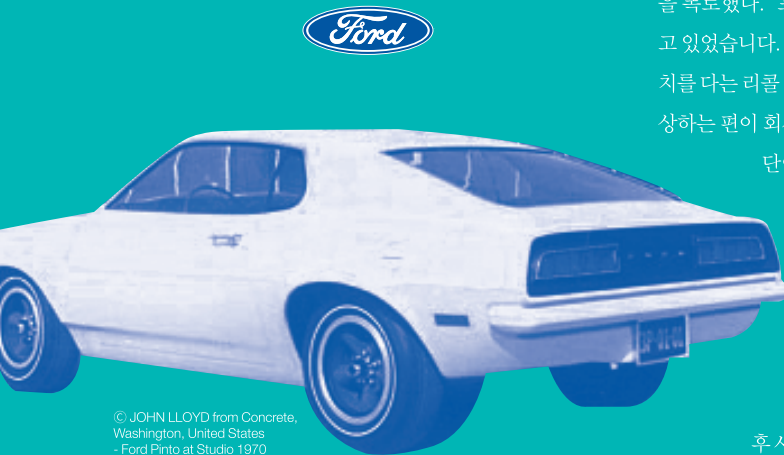


글. 진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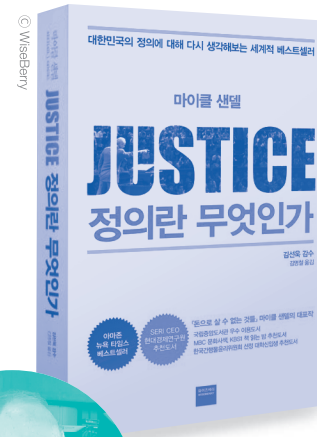
매경경영지원본부 칼럼니스트
소프트랜더스(주) 고문
(주)삼기 북미법인장

약 2,500여 년 전, 공자가 어느 고을을 방문했다.
고을 원님은 공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고을에는 한 정의로운 청년이 있지요.
그의 아버지가 남의 양(羊)을 훔치는 것을 보고,
청년이 이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자가 한마디했다.
“내가 사는 곳은 다릅니다.
그런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숨기고,
아버지 또한 아들의 잘못을 숨깁니다.”

포드(Ford) 사는 한때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였다. 1970년대 포드 핀토(Pinto)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 소형차였으나, 후방 충돌 시 연료탱크가 쉽게 폭발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탑승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500건 이상 발생했다. 한 피해자가 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재판 끝에 내부 고발자가 마침내 진실을 폭로했다. “포드의 엔지니어들은 폭발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팔린 핀토를 회수해 보강장치를 다는 리콜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편이 회사에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경영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에 배심원들은 격분했고, 결국 포드는 패소했다. 250만 달러(약 30억 원)의 손해배상금 외에도, 1억 2,500만 달러(약 1,5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이 부과됐다. 이 사건으로 포드는 정의롭지 못한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이후 사세는 급격히 쇠락했다.



© JOHN LLOYD from Concrete,
Washington, United States
- Ford Pinto at Studio 1970



‘정의(正義; Justice)’가 무엇인지 간결하게 정의(定義; Definition)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위 사례와 같이, 고을 원님과 공자는 서로 다른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학자와 선각자들이 정의에 대해 논하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는 저서 『JUSTICE』를 통해 정의의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전통적 공리주의.
둘째,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셋째, 사회공동체 대다수의 윤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미덕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된다”고 말하며,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가치 기준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정의는 단정적으로 규정지를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윤리관과 가치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성찰해 나가야 할 ‘화두’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 정의, 평등한 정치적 지향을 추구하는 정치 정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 정의, ‘정당한賃값’을 추구하는 사법 정의 등 분야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근로자, 주주, 경영자, 공급망 종사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얹힌 ‘기업’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 경영자와 임직원이 추구해야 할 정의는 무엇이며, 기업은 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사전적 정의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조직’이다. 이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업의 존재 이유’로 오랫동안 당연시됐다. 그러나 오늘날 ‘이윤 추구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관점이 대중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화두가 됐다.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 부작용의 심화, 지구 온난화 및 환경 파괴 그리고 기업 영향력의 폭발적 확장이 있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20세기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유시장주의자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이라고 확고하게 주장했다.

기업은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의식적 조직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본질은 ‘주주 이익 추구 단체’라 인식됐다. 이 개념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케인즈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유시장주의자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주장으로 더욱 널리 인정받았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이라고 확고하게 주장했다. 이윤이 있어야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닉슨과 레이건 등 보수 자유주의 정권 경제정책의 바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 이익 중심’의 사고를 넘는 새로운 이론이 1999년 미국 학계에서 제기됐다. 바로 ‘생산 공동체설(Team Producti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경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관점이다. 주주는 자본으로, 근로자는 노동으로, 경영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투입해, 창출된 이윤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정의의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 인식은 2019년 8월, 아마존, GM, 애플, 시스코, 월마트 등 200여 명의 주요 대기업 CEO로 구성된 단체인

BRT(Business Roundtable)가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입장’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들은 기존의 ‘주주 우선’ 원칙에서 벗어나, 공급망, 임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정의에 대해 획기적인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이제 정의의 관념이 갖든 기업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이윤이 아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2000년 대 초, 그의 저서 『MANAGEMENT』에서 “이윤은 기업의 목적이나 동기가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 타당성 판정 조건이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기업 존속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기업은 이윤을 내야만 비로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윤은 기업이 더 나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존재 이유가 내부가 아닌 외부, 즉 고객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객의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며, 그 정의는 바로 ‘고객’이라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ESG 경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MZ 세대는 ‘ESG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의로운 기업’, 쉽게 말해 ‘착한 기업’이

아니면 그들에게 상품을 팔 수도 없고, 그들의 호감을 얻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특정 기업에 비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준법 및 윤리 경영 미흡’이었다. 포드 펀토 사례는 윤리경영 부재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윤리경영은 사회적 윤리를 경영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단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윤리와 도덕까지 기업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준법경영(Compliance)’이다. 결국 준법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윤리적 기준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면 기업 호감도와 신뢰도가 상승하고, 이는 매출 증대와 이윤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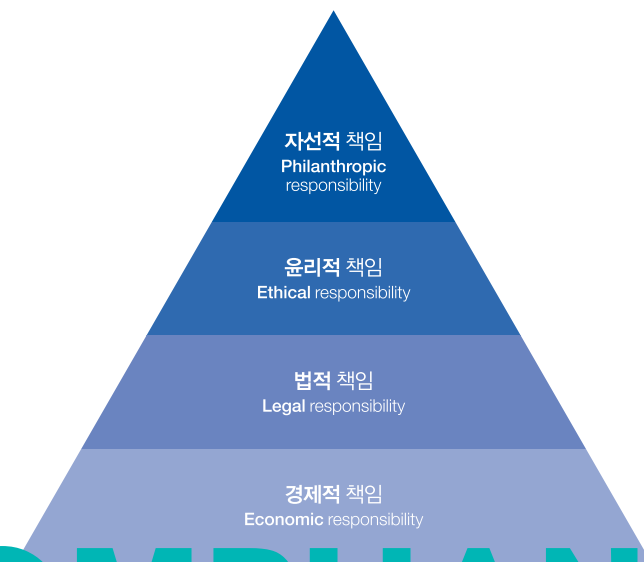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될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OECD 평균 이상의 청렴한 나라라고 인식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65%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대외신임도가 높아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 말했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많다. 자연, 예술, 인생, 인체, 진리, 행복 그리고 사랑 등이다. 기업에게 있어 아름다운 단어는 ‘이윤’이다. 단, 그 이윤이 윤리경영에 기반한 ‘정의로운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더욱 아름답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



COMPLIANCE



정의

공정함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세아홀딩스 법무팀

기업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함’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이 두 가치는 협업과 거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율이나 의사결정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일상 속 업무 현장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세아홀딩스 법무팀은 이러한 실무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법률 이슈에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며, 그룹 전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법무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무팀, 경영 활동의 단단한 토대

“저희 법무팀은 그룹의 모든 경영 활동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재석 팀장은 법무팀의 주요 업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계약서 검토, 일반 법률 자문, 분쟁(소송) 대응, 그리고 규제기관 및 수사기관 조사 대응이 그것이다.

법무팀은 회사 명의로 체결되는 각종 법적 문서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바로잡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조연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계약 조건에 법규 위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업무는 법무팀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의에는 신속하게 응답함으로써, 경영진과 현업 부서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절차를 관리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계열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조율한다.

근로감독, 세무조사, 관세조사 등 각종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도 법무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사전 질문 정리와 답변 준비는 물론, 조사 또는 수사 대상자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연습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무 전반을 수행함에 있어, 법무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원칙에 기반한 실용적 대안 제시’이며,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첫째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현업 부서가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업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고민한다. 김덕현 변호사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사업 부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 법무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고 말한다.

수많은 법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그 결과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입체적 검토’다. 단기적인 유흐리를 넘어, 하나의 결정이 회사의 신뢰라는 무형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차재석 팀장은 “물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한 과정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며 법무팀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공정한 판단, 투명한 소통

법무팀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법률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많은 법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그 결과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신지혜 변호사는 “강행규정처럼 우선순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계약 조건은 당사자의 관계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다”면서 “이 때 법무팀은 우리 회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보다,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위법 여부나 리스크 회피를 넘어, 균형 잡힌 조건을 제시해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돕기 위함이다. 세아에만 유리한 조건을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하영 변호사는 법무팀의 역할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 구성원과 조직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법무팀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왜곡 없이 전달하는 동시에, 각자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무팀은 규제기관 및 수사기관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또한 법무팀의 책무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은 바로 '투명한 소통'이다. 최다현 변호사는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에 임하는 자세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말’만 해주기보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재 변호사는 법무팀이 내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올곧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마음 속에 ‘미움 받을 용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용기를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힘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공정거래, 개인정보, 노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제도 개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팀은 지속적인 법령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 사안을 구성원들과 신속히 공유하며, 세아의 준법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다.



법무팀은 ‘소방관’이 아니라 ‘망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김덕현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그룹 전체의 최고 의사결정 조력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라며, 윤리경영의 출발점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윤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법무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낸 경험,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찾아내 함께 고민했던 시간, 바쁜 프로젝트 속에서도 서로의 일정과 감정을 배려해준 동료들. 그런 순간들이 모여 제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어떤 ‘한 장면’보다는 ‘함께 견뎌낸 모든 시간’이라고 답하는 전은성 변호사다. 법무팀의 업무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지만, 그 조용한 이면에는 법무팀의 강한 에너지와 유기적인 협업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다.

소방관이 아닌 망잡이로

“법무팀은 ‘소방관’이 아니라 ‘망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세아홀딩스 법무팀은 세아의 향해가 암초를 만나기 전에, 안전한 경로와 새로운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이 아닌 ‘건강검진센터’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해, 조직 구성원의 법적 감수성을 높이고 각자가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문화. 법무팀은 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바람으로 삼고 있다.

오늘도 세아홀딩스 법무팀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세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

SēAH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재생에너지 전환 본격화 한화큐셀과 20년 장기 PPA 체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세아베스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홍상범 세아베스틸 경영총괄부문장과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이 PPA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이 올 하반기부터 한화큐셀이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세아베스틸은 국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한화큐셀과 20년 장기 직접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며, 탄소 저감을 통한 친환경 철강 생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RE100 이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2024년 기준 연간 26,967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그 규모를 총 43,392MWh까지 확대했다. 이는 국내 4인 가구의 연평균 전력 사용량(3,684kWh)으로 환산할 경우 약 1만 2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연간 약 19,800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아베스틸은 철스크랩 기반의 전기로 제강 방식을 통해 고로 방식 대비 탄소 배출이 현저히 적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과 저탄소·친환경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화큐셀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직접전력구매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을 선보이며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20년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세아베스틸과 한화큐셀은 RE100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

홍상범 세아베스틸 경영총괄부문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직접전력구매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기업 가치 제고와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전략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RE100 실현과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해 무탄소 전원 확대와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장기 PPA 체결을 발판 삼아, 지속가능한 제조 기반과 환경 중심의 기업 운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사적인 ESG 실천을 통해 책임 있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세아베스틸의 행보가 기대된다.☺



reddot winner 2025

SeAH BRAND FILM

I'm STEEL here



세아그룹 브랜드 필름 'I'm STEEL Here'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수상

세아그룹의 2025 브랜드 필름 'I'm STEEL here'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독일 iF(International Forum)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에서 혁신성과 우수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세아그룹은 이 공모전에서 2023년 동일 부문 본상에 이어 올해도 본상을 수상하며 두 번째 성과를 거뒀다. 특히 B2B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철강업계에서 본상을 두 차례 수상한 것은 세아그룹이 최초이다.



세아그룹은 매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담은 브랜드 필름을 선보이며 '세아'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왔다. 'We Are Changing', 'MY HERO', 'FLY, CHANGE AND GROW' 등 영상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철강소재 전문 그룹으로서 세아의 정신과 비전을 담아 대내외에 공유해왔다.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브랜드 필름 'I'm STEEL Here'는 철로 만든 인형 '캡틴 세아'와의 만남을 통해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주인공의 성장 서사를 감동적으로 풀어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쓰여온 철이 우주·항공·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변함없이 지속가능한 소재로 가치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철이라는 소재가 늘 인간 곁에 함께해왔다는 테마 아래, 완성도 높은 배경음악과 짧은 단편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미, 스토리텔링이 주목 받았다.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세아의 창의성과 기획력이 세계 최대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아는 앞으로도 '세아' 브랜드 가치를 투영한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 브랜드 필름 'I'm STEEL Here'는 세아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아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과 소외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주)나눔비타민과 손잡고,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디지털 기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한 끼 식사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세아 임직원들이 따뜻한 식사와 마음을 함께 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한 끼 식사 선물' 캠페인



세아와 (주)나눔비타민이 함께한 '한 끼 식사 선물' 캠페인은 본사를 비롯해 포항, 군산, 창원, 충주 등 세아의 지역 사업장이 위치한 도시의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전하는 프로젝트였다.

세아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밀착형 돌봄' 모델을 바탕으로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한 '제감형 기부'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는 세아그룹 전용 디지털 기부 플랫폼 'SeAH with 나눔비타민'을 통해

진행됐다. 임직원이 플랫폼에서 덮밥, 치킨, 삼겹살 중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면, 동일 금액의 모바일 식사 쿠폰이 자동 발행돼 아동에게 1:1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아동의 식사 사진과 감사 편지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기부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달된 아이들의 감사 인사를 통해, 나눔이 전해지는 순간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은 참여자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나눔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총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약 9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이를 통해 400장 이상의 모바일 식사 쿠폰이 실제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모든 기부 내역은 나눔비타민의 플랫폼 '나비얌(NABE.YAM)'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됐다.

세아는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임직원 참여 중심의 지역사회 ESG 실천 모델을 구체화했다. 지역 사업장과 지역 아동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세아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ESG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더 많은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고난도 진입장벽을 넘어 신시장을 개척하다

세아제강
업적상 은상 수상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지인 중동. 그중에서도 사우디 아람코(Aramco)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검수 시스템을 갖춘 국영 석유회사다. 수많은 글로벌 강관 기업들이 이 시장 진입을 꿈꾸지만 대부분은 기술적, 행정적 장벽 앞에서 고배를 마신다. 그러나 세아제강은 달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아람코와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OC)의 Conductor Casing 제품 벤더 자격을 보유한 강관 기업으로서, Premium Conductor용 모관의 대규모 수주 및 납품에 성공하며 수익성과 브랜드 신뢰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팀은 바로 이 성과의 주역들이다.



“
이 성과는 단순히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수년에
걸친 철저한 검증과
신뢰 구축의 결실이었다.”

미국 의존을 넘어, 고부가 3국 시장 개척의 전환점

강관 산업의 글로벌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잉 공급, 원자재 가격 변동,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업계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하며, 세아제강 역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3국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외 지역은 용접 강관 수요 자체가 많지 않고, 제품별 기술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가격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용 제품이 아닌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을 재설계해야 했죠.” 업적상 수상팀의 구성 배경을 설명하는 문정훈 부장이다.

세아제강이 미국 외 시장으로 확장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무렵. 품질경영팀과 수출2팀으로 구성된 이번 수상팀은 비용접 강관(Seamless Pipe) 수요가 늘어나던 중동 시장에 주목했다.

이후 15년간 수출 실적과 공급 경험을 꾸준히 축적하며, 하이엔드 제품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 결과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유정용 강관(OCTG) 공급 자격을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랍코向 Premium Conductor용 모관의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과는 단순히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수년에 걸친 철저한 검증과 신뢰 구축의 결실이었다.

전략과 기술력으로 구축한 신뢰, 품질로 증명해내다

Premium Conductor용 모관은 일반적으로 사우디 현지 생산 업체(Local Mill)를 통해 조달된다. 이는 아랍코의 현지화 지표인 IKIVA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를 따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세영 차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단가 경쟁만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현지 업체는 SAW 방식을 쓰는 반면, 우리는 ERW 공법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프리미엄 품질을 유지한 적정가 제시’ 전략을 고수했죠.”

이들은 현지 공급업체, 일본계 상사, 발주처 실무자와의 꾸준한 접점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CEO급 협상까지 직접 나섰다.





발주처 검사관의 입고검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끝까지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했고, 마침내 세아에 구매 주문(PO)을 넣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이후 세아제강은 그 신뢰를 성과로 증명해냈다.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세아제강의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Conductor용 모관은 유정 굴착 초기에 지반 붕괴를 막고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핵심 자재로, 직경·두께·강도·무게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스펙을 요구한다. 설치 후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람코는 해당 제품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승운 차장은 “SAMSS-006이라는 아람코 전용 규격에 맞춰 자체 검사와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쳐 품질을 관리했고, 최종적으로는 불량률 제로 수준으로 납품을 완료했죠.”라고 설명한다.

출하 마지막 단계까지도 품질관리는 철저했다. 업적상 수상팀은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보내기 위해 날씨와 부두 적재 시간까지 고려해 선적 일정을 정밀하게 조율했다.

세아제강의 완벽한 품질관리가 오해를 빚은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승운 차장은 사우디에 첫 제품을 납품했을 당시, 고객사로부터 ‘코팅이 금지돼 있는데, 코팅한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은 경험을 회상했다. 실제로는 아람코의 요구사항에 따라 코팅 없이 출하한 제품이었지만 부두 적재 기간을 최소화하고 맑은 날을 골라 신속히 선적한 결과, 철 본연의 검은색 상태가 잘 유지돼 코팅 제품처럼 보였던 것이다. 오히려 품질이 지나치게 잘 관리된 탓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유기적인 팀워크의 모범 사례, 이제는 ‘지속수주’의 길로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부서만의 성과가 아니었다. 품질, 수출, 생산, 물류 등 다양한 부문이 긴밀하게 협업한 전사적 과제로, 각자의 역할을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한 주인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정훈 부장은 전략 수립과 고객 대응을 총괄했으며, 이세영 차장은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일정 관리를 맡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승운 차장은 품질 관리와 아람코 검사 대응을 맡았고, 장빅토르 과장은 유관 부서간 협업을 조율하며 내부의 다양한 변수를 관리했다.

장빅토르 과장은 “이번 수주와 납품은 한 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구매팀이 소재 수급을 철저히 준비했고, 생산계획팀이 납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으며, 물류팀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송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함께의 가치’로 이뤄낸 성과였다.

“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도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다져온
수상팀은, 세아제강이
더 높은 시장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현재 아람코 프로젝트는 일정 분량의 납품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지화 정책 변화에 따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팀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무대로 발을 내디뎠다.

이미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OC)로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2025년 5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또한, 포항공장 내에는 PJC(Premium Joint Connector) 라인을 신설해,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문정훈 부장은 “향후 세아제강이 유정용 강관의 용접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유정용 강관을 포항공장의 주력 제품군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위기가 곧 기회’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도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다져온 수상팀은, 세아제강이 더 높은 시장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NDT 검사

일상을 비트 있게 만드는 두드림

세아씨엠 변화관리팀
박세근 팀장

40대까지만 해도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아무렇지 않았다. 박세근 팀장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중년의 문턱을 넘어설 무렵이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드림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고, 그날의 심장 박동은 그대로 그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다. 주저 없이 드림 학원의 문을 두드린 박세근 팀장은 이내 연주의 매력에 빠졌다. 하루하루 바쁜 업무 속에서도 드림이라는 심표를 통해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회사 밖, 열정의 아마추어 드러머

“학창시절 하모니카나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해보긴 했지만, 드럼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막연하게 동경만 하던 존재였어요. 그러다 영화 <애틀맨과 와스프> 에서 스캇 랭이 가택연금 중 드럼을 연주하는 장면에 반해 드럼을 배우기로 결심했죠.”

직장에서는 업무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박세근 팀장이지만, 주말의 그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간다. 취미와 자기계발, 가족과의 시간으로 바쁜 마친가지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리드미컬하게 하루를 보낸다.

특히 영화 감상, 골프 연습, 드럼 연주 등으로 채워지는 주말 오전은 그의 일상을 비트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최근에는 드럼에 푹 빠져, 주말은 물론 평일 퇴근 후에도 연습실을 찾을 만큼 열정이 커졌다.

“처음에는 몸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양손과 두 발을 각각 다르게 움직여야 하니까 익숙해지기까지 꽤 힘들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복잡함이 오랜만에 마주한 ‘도전’처럼 반가웠다고 한다. 주 1~2회 레슨을 받으며 점점 박자가 몸에 익고,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서너 달간 기본기를 배운 뒤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독학을 이어갔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며 더욱 빠져들었다.

“초반에는 느린 곡도 연주하기 벅했는데, 한 곡씩 완주에 성공하고 나니까 조금 빠른 곡도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재미가 불던군요.”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또다른 희열을 느끼게 해준 드럼. 새로운 박자를 익히는 설렘과 도전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자부심이 그를 다시 드럼 앞에 서게 한다.



드럼, 스트레스의 특효약

“한 곡만 제대로 연주해도 땀이 날 정도예요.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죠. 그만큼 물입이 필요해서, 연습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져요.”

드럼은 육체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악기다. 격한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리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 집중력이 필수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직장인의 일상 속에서, 드럼은 오롯이 혼자만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스트레스를 회피하기보다는 빠르게 해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박세근 팀장에게 드럼 연주는 가장 효과적인 해소법이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일부러 속도감 있는 곡을 골라 연주해요. 강한 비트를 두드리다 보면 답답함이 확 날아가죠.”

드럼을 시작한 뒤 그는 한때 90kg대였던 체중을 80kg 초반까지 감량하고,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유지어터’가 됐다. 드럼 연주가 체중조절은 물론 뇌 자극을 통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는 지금도 드럼 예찬을 아끼지 않는다.

음악으로 더 멋지게 흘러가는 삶

“요즘은 150~157BPM 정도의 곡을 연습하고 있어요. 실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꾸준히 스트로크 연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플 리듬과 드럼 마치 패턴도 익히는 중이에요.”

Deep Purple의 ‘The Temple of the King’, ‘Burn’, ‘Highway Star’ 그리고 Metallica의 ‘Whiskey in the Jar’, ‘Enter Sandman’을 연주하는 것이 목표라는 박세근 팀장. 그는 말한다. “꼭 프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결과보다 그 과정을 향해 몰입하는 시간이지요.”

그는 드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주 돌아보게 됐다고 말한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음악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소통과 배려를 배우고 있다고.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나’라는 존재에 의미를 만들어 주는 가족과 동료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렸다는 박세근 팀장. 음악을 통해 삶을 비트 있게 만들어가고, 사람들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럼처럼 힘차고 멋진 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

휴게소 간판 메뉴, 호두과자

호두과자.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마음이 푸근해지는 이 간식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대표한다. 갓 구워낸 노릇노릇한 반죽 속 달콤한 팥소(팥앙금)와 고소한 호두 알갱이가 씹히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조화로운 풍미는 마성의 매력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징이 된 호두과자에는 조막만 한 손으로 호두과자 봉지를 꼭 쥐고 하나씩 꺼내 먹던 그 시절의 추억이 스며 있다. 한 세기를 향해 달려가는 호두과자의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간식

호두과자는 1934년 충남 천안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일본의 전통 간식 '쿠루미야끼'에서 착안해 달콤한 팥소와 고소한 호두를 밀가루 반죽에 넣고 틀에 찍어 구워낸 것이 그 시초다. 이후 천안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호두과자는 1970년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됐다.

특히 1970~80년대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고속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가족 여행이 유행하면서, 휴게소에 들러 호두과자를 사 먹는 풍경은 여름철 여행의 한 장면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호두과자가 담긴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하나씩 꺼내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은 여행길의 묘미였다.

호두과자의 매력은 조화로운 맛에 있다. 쫄득한 반죽, 달콤한 팥소의 깊은 풍미, 그리고 고소한 호두의 식감이 한데 어우러져 입안을 풍성하게 채운다.

이 매력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철판으로 만든 호두과자 틀이다. 반죽과 속재료를 넣고 20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는 철판 양면을 눌러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호두과자가 완성된다.

과거에는 동판으로 제작되기도 했으나, 열전도율과 유지력이 뛰어난 특수 주물 철판으로 된 틀이 널리 사용되면서 지금의 맛과 식감이 완성됐다. 철판은 반죽에 열을 빠르게 전달하면서도 균일하게 익힐 수 있어, 반죽의 바삭함과 팥소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살려준다.





또한 철판에 살짝 눌러붙은 팔소와 반죽이 만들어내는 바삭함과 고소함은 호두과자의 숨은 매력이다. 그 맛은 어린 시절의 정겨운 기억을 소환하며 먹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트렌디한 디저트로의 진화

호두과자의 인기는 지금도 여전하다. 전통적인 팔소와 호두의 조합을 넘어 최근에는 다양한 퓨전 호두과자가 등장하고 있다. 커스터드 크림, 초콜릿, 녹차, 딸기잼 등 새로운 속재료를 넣은 호두과자는 물론, 반죽에 썩이나 흑임자를 섞어 색다른 풍미를 살린 호두과자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해 ‘왕호두과자’, ‘미니호두과자’, ‘한입호두과자’ 등 다양한 크기와 패키지로 출시되며, 전통 간식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트렌디한 디저트로 재조명받고 있다. SNS를 통해 ‘호두과자 투어’, ‘나만의 호두과자 맛집’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휴게소마다 개성 있는 호두과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또한 호두과자 밀키트와 냉동 호두과자도 등장해, 집이나 캠핑장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해외 직구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며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전국 호두과자 맛집

호두과자의 인기는 휴게소별 간식 문화도 함께 만들어왔다. 그중에서도 ‘천안삼거리휴게소’는 ‘호두과자의 성지’로 불릴 만큼 유명하다. 1970년대부터 천안 특산물 호두과자를 판매해 온 이곳은 두툽한 반죽과 팔소, 큼직한 호두 알갱이로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안성휴게소’의 호두과자도 인기다. 바삭한 식감과 알찬 팔소로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치즈크림과 카야잼을 넣은 신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옥산휴게소, 금강휴게소, 서산휴게소 등 충청권 주요 휴게소마다 저마다의 개성과 맛을 자랑하는 호두과자집들이 즐비하다.

호두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여행길의 추억과 따뜻한 정서를 담은 세대 간의 문화이기도 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고소한 냄새, 종이봉투를 받아 들고 파삭한 과자를 꺼내 먹던 그 순간은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철 틀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호두과자의 소리와 냄새는 오감을 자극하고, 그 안에 담긴 추억은 길 위의 작은 위로가 된다. 앞으로도 호두과자는 철 틀의 온기와 함께 소중한 기억을 구워내며, 국민 간식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갈 것이다.☺



호두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여행길의 추억과 따뜻한 정서를 담은 세대 간의 문화이기도 하다.



1995년, 세아는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를 하나하나 극복해온 시간은 곧 SeAH Steel Vina(SSV)의 역사이자, 세아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기록이 됐다. 현재 SSV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강관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세아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올해 8월,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SSV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품질 경영, 인재 중심 경영으로 실현하는 동남아 최고의 종합 강관 제조사 SeAH Steel Vina(SSV)



다양한 산업에 공급되는 경쟁력 있는 강관

호치민 인근에 위치한 비엔호와(Bien Hoa)는 베트남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로, 활기찬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온 도시다. 열대 계절풍 기후 특유의 여름비와 강렬한 햇살 아래 도시 특유의 생동감이 더해진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답게 쩌비엔(Trần Biên) 문묘, 띠런(Tân Lân) 정자 등 유적은 물론, 웅 사원 축제, 끼엔 축제, 응우옌 호우 깐 제사 등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도 여전히 살아 숨 쉰다. '작은 하롱베이'라 불리는 부롱(Bầu Long) 관광지와 망고 정원(Vườn Xoài) 같은 자연 명소도 이 도시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곳 비엔호와는 SSV의 핵심 생산 거점이자 세아가 현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뿌리내린 공간이기도 하다. SSV는 현재 비엔호와와 연썽(Nhon Trach) 지역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비엔호와에 위치한 1공장은 71,250㎡ 부지 위에 연간 23만 톤의 조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썽의 2공장은 120,000㎡ 규모로 연간 1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사업장

에는 총 400여 명의 현지 직원이 근무 중이며, 법인장 백규한 상무를 중심으로 김철규 부장과 박준형 차장이 비엔호와 공장을, 김기홍 차장이 연썽 공장을 이끌고 있다.

SSV는 다양한 용도와 강종의 강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석유·천연가스 운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라인파이프를 비롯해, 유정 시추용 강관, 저압 증기·물·가스 이송용 배관, 토목 및 건축용 구조용 파이프, 전기 배선용 전선관, 소방용 스프링클러 파이프 및 소방 배관용 강관 등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API, KS, JIS 등 국내외 주요 규격 인증을 획득해 품질 경쟁력을 입증받았다.

북미 시장이 주력 시장이나, SSV는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 구조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사이 제3국 수출과 베트남 내수 매출이 모두 증가했으며, 올해도 그 기초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미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글로벌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품질과 인재, 그리고 세아의 문화

SSV가 지난 30년 가까이 현지에서 쌓아온 성과는 단순히 설비 규모나 수출 실적에 그치지 않는다. 박준형 차장은 “SSV의 경쟁력은 품질과 생산성, 그리고 인재 양성에 있다”고 강조한다.

설립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분명한 장벽이었지만, 주재원과 현지 직원들이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SSV만의 실력 있는 인재들이 꾸준히 양성돼 왔다. 반복 학습과 세심한 소통, 실수를 줄이기 위한 끈기 있는 노력은 곧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세아의 인재 철학은 현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SSV는 직원들을 ‘함께하는 동료’로 대하는 문화를 실천하며, 베트남

내에서도 이직률이 매우 낮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매년 설 연휴 이후 전체 기업의 10% 이상 이직하는 일이 흔하지만, SSV는 미복귀 인원이 5명 이하에 불과할 정도다. 이는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가 만들어 낸 결과다.

전략적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으로 도약하는 SSV

철강 산업은 각국의 기간산업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며 철강 수출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SSV는 과거 유사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SSV는 미국 수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호주, 홍콩, 대만 등 제3국 수출과 내수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원가와 품질 측면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글로벌 시장 시나리오를 면밀히 분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지금 SSV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SSV는 중장기적으로 동남아 최고 수준의 종합 강관 제조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작 2공장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중경관 설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SV는 베트남 내수 시장에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경관에 대한 수요는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SSV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한 전략적 투자로 베트남 강관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겠습니다.”

박준형 차장의 말처럼, SSV는 철강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베트남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세아의 DNA를 품은 SSV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스스로의 가능성과 경계를 넓혀가며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박준형 차장이 전하는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의 결혼식은 보통 세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통적인 혼례라기보다는 세 번의 피로연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담호이(Đám Hôi)’라 불리는 구혼 의식으로,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가 결혼을 청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격식을 갖춘 의식으로 치러졌지만, 요즘은 결혼식 1~2주 전 신부 집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며 간소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는 신랑 집에서 두 번째 피로연이 열립니다. 고향 친지들을 초대해 조상님께 혼인을 고하는 의식을 올리며, 이는 한국의 주례 혼인서약과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고, 최근에는 초청 가수나 가라오케 무대를 마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는 신랑과 신부가 신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초대받는 피로연도 이날 열립니다.

베트남의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으며, 주로 신랑이나 신부의 아버지가 앞에 나서 간단히 반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합니다. 이어지는 피로연에서는 술과 음식을 나누고, 노래와 춤이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피로연은 베트남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 지금도 지역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가장 큰 축제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고마워서



동해의 푸른 품, 울진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후정해수욕장, 울진해안도로, 성류굴



ULJIN-GUN

여름은 탈출을 꿈꾸게 하는 계절이다. 이 계절, 우리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푸른 숲을 찾아 일상 밖으로 훌쩍 떠나
고픈 마음을 실행에 옮기곤 한다. 도시의 답답함과 빠듯한 일과를 잠시 뒤로하고, 자연이 숨 쉬는 곳으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해소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동해안의 청정 자연을 품은 경북 울진은 고즈넉한 해변과
그림 같은 해안도로, 신비로운 동굴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번 여름, 울진에서
만날 수 있는 세 곳의 명소를 소개한다.

조용한 해변에서의
산책과 조개 줍기,
갯 잡은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인근 횃집까지,
이곳의 여름은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추억을 남겨준다.

차분한 휴가를 선물하는 해수욕장

울진 읍내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후정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조용한 해변이다. 길이 1.5km에 이르는 해변은 수심이 완만하고 파도가 잔잔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지로도 인기가 높다. 하얀 모래알이 반짝이는 백사장과 푸른 물빛, 그 뒤로 드리운 송림의 조화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특히 후정해수욕장은 인근의 유명 해수욕장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 여름 성수기에도 북적이지 않는다. 한적한 백사장 위를 맨발로 걸으며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생각이 사라진다.

해변 뒤편으로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은 해풍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자라, 마치 동해의 수호신처럼 해안을 감싸 안는다. 곳곳에 마련된 벤치와 평상 덕분에 책을 읽거나 졸음에 스르르 빠져들기에도 좋은, 더없이 아늑한 공간이다.

해 질 무렵, 붉은 석양이 수면 위에 드리워지면 후정해수욕장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잔잔한 파도와 갯벌, 저녁노을이 어우러져 마치 수목화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조용한 해변에서의 산책과 조개 줍기, 갯 잡은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인근 횃집까지, 이곳의 여름은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추억을 남겨준다.

동해를 따라 달리는 절경 드라이브

동해의 절경을 따라 이어지는 울진해안도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드라이브 코스다. 특히 죽변항에서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약 15km 구간은 동해의 푸른 수평선과 기암괴석, 아담한 어촌 마을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은빛 파도, 유유히 떠다니는 고깃배의 모습은 여행자의 마음을 절로 여유롭게 만든다.

죽변항은 울진의 대표 어항으로, 활기찬 어시장과 갯 잡은 해산물, 해물라면, 어묵꼬치 등을 통해 소박한 바다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붉게 타오르는 새벽 해돋이는 사진 애호가들을 이곳으로 이끈다.

죽변항을 지나 망양정으로 향하는 길에는 작은 어촌과 아담한 해변이 잇따라 펼쳐진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시간이면, 중간중간 마련된 전망대와 쉼터에 차를 세우고,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풍경에 잠시 취해도 좋다.

망양정에 오르면 발아래로 동해와 죽변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라 불리던 이곳은 조선 중기의 문신 이산해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지금의 정자는 1979년 복원됐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은, 호사스럽도록 넉넉한 평화를 선사한다.





자연이 빛은 신비로운 동굴

울진의 또 다른 명소, 성류굴은 약 2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천연 석회동굴이다. 내부 온도는 연중 약 20도로 유지되며, 총 길이 870m의 동굴 안에는 종유석과 석순, 석주, 석회화폭포, 석회화호수 등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성류(聖留)'라는 이름은 '성스러운 물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맑은 지하수가 늘 고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성류굴은 '지하의 금강산'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내부의 석회암 구조물이 여러 봉우리를 이루며, 마치 금강산의 바위봉우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서늘한 공기와 함께 형형색색 조명을 받은 종유석과 석순이 마치 조각 작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과 바닥에서 자라나는 석순이 만나 석주를 이루는 모습은, 자연의 오랜 시간과 인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바닥에서 자라나는 석순이 만나 석주가 되고,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든 석회화의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롭다.

성류굴 내부에는 '12경'이라 불리는 절경이 자리하고 있다. '용궁', '장군바위', '연꽃지대' 등 기암괴석이 만들어낸 다양한 형상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면 더욱 흥미롭다. 그중 '용궁'은 깊은 수면과 거대한 종유석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으로, 물에 거꾸로 잠긴 종유석은 동굴 속 전설의 용을 떠올리게 한다.

계곡에 깃든 천년고찰

성류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불영사와 불영계곡은 천년 고찰의 고즈넉함과 맑은 계류의 청량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거친 계류를 따라 병풍처럼 둘러선 절벽과 수백 년 된 고목이 길게 이어지며, 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은 바위 사이를 굽이쳐 흐른다.

곳곳에는 작은 폭포와 소(沼)가 형성돼, 보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특히 불영사 앞, 물에 비친 산과 사찰의 모습은 마치 동양의 신비를 고스란히 담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울진은 시끌벅적한 피서지가 아닌, 자연과 어우러져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후정해수욕장에서 바다의 정취를 만끽하고, 동해를 따라 달리는 해안도로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드라이브를 즐긴 뒤, 성류굴의 신비로운 세계 속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어보자. 마지막으로 불영사와 불영계곡에 마주한 풍경을 사진에 담는다면, 올여름 완벽한 여행이 될 것이다.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속에 천천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 다시 숨 쉴 여백이 채워진다. 이번 여름, 울진으로 떠나 자연이 내어주는 고요하고도 깊은 쉼을 만나보기를 권한다. ☺



후정해수욕장, 울진해안도로, 성류굴

울진 세 곳의 명소 여행 TIP



코스 추천

1일 코스 (당일치기)

오전: 성류굴 ▶ 점심: 울진 시내 or 죽변항 근처

오후: 울진해안도로 드라이브 ▶ 해 질 무렵 후정해수욕장 산책 & 일몰 감상

2일 코스 (1박 2일)

1일차: (오전) 성류굴 ▶ 점심 ▶ (오후) 해안도로 드라이브

▶ 후정해수욕장 일몰 ▶ 울진 숙박

2일차: 아침 해안 일출 감상 ▶ 죽변항 수산시장 ▶ 망양정 or 덕구/백암온천 방문



후정해수욕장 여행 TIP

야경: 해 질 무렵 방문하면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의 조화가 인상적.

캠핑 or 차박: 후정해수욕장 근처는 간이 캠핑이 가능한 곳도 있어 차박을 고려하는 이에게도 좋음. 단, 지정된 장소 외 캠핑은 지양.

편의시설: 여름철에는 간이 샤워장, 화장실, 편의점이 운영됨. 성수기 외에는 준비물 필수.



(국도 7호선 일부 구간)

울진해안도로 여행 TIP

해 뜨는 시간: 동해안이니 만큼 일출 시간대 드라이브 강력 추천! 망양정 일출이 유명함.

포토스팟: '망양정', '죽변등대',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필수 정차 포인트.

운전 시 주의: 해안도로 일부는 굴곡이 심하거나 경사가 있음.

간식: 죽변항 인근 수산시장에서 오징어와 회를 간단하게 맛볼 수 있음.



성류굴 여행 TIP

관람 소요시간: 약 30분~40분.

유의 사항: 동굴 내부 온도는 15도 안팎으로, 봄, 가을에는 얇은 겂옷을 챙기는 것이 좋음.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구간이 있어 편한 운동화 필수.

사진 촬영: 동굴 내 조명이 예쁘지만 플래시는 제한됨.

운영시간/입장료: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울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후 방문 권장.

세아제강

하트세이버 양성교육 실시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하트세이버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대근무 중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CPR, AED 사용법, 간단한 외상처치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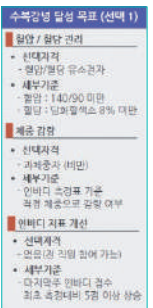
세아베스틸

미세먼지 저감 우수사업장 2년 연속 선정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주관한 '2025년도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우수사업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세아베스틸은 전년 대비 약 14%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지방환경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아베스틸은 앞으로도 '환경사고 제로화' 및 '비산(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수복강령 프로그램, 건강한 일터 만들기 본격 추진



세아베스틸은 임직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수복강령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20주간 진행되며, 참가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세 가지 주요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선택 가능한 목표는 ▲혈압·혈당 관리, ▲체중 감량, ▲인바디 지표 관리, ▲선배저격, ▲운동(권) 진행 참여 가늠, ▲세탁기론, ▲다지않루 인바디 결수, ▲최초 속장테비 5월 이상 상송 5점 이상 개선이며, 참가자들은 정기적인 측정과 피드백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수복강령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아베스틸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아창원특수강

2025년 안전의 날 행사 개최



지난 7월 8일, 안전강조주년을 맞아 무재해 달 성 의지를 새롭게 하고 안전문화정착 다짐을 위한 안전행사가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강당에서 개최됐다.

200여 명의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 계몽표지 경진대회,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안전사고 격파 퍼포먼스를 통해 전 임직원이 안전을 지키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세아씨엠

산업안전보건에 달 맞아 안전보건공단 감사패 수상



세아씨엠은 7월 22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년 연속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업장 선정,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안전집중관찰제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 받은 결과다. 세아씨엠은 지난해에도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후동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개인 맞춤형 안전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문화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세아씨엠은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지난 7월 30일 세아씨엠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내 독거 어르신 60명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 '따뜻한 마음, 든든한 한 그릇'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기력 회복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인 삼계탕 밀키트를 직접 조리·포장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세아씨엠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자 이번 나눔을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나눔 활동 실시



세아씨엠은 7월 25일, 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Cool 하게! 쿨쿨~' 이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여름용 이불 세트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온열 질환 예방과 위생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세아씨엠은 당일 기탁식을 통해 준비된 이불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했다. 세아씨엠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세아제강지주

조의
오정찬 기업문화팀 (외조모)
류동진 준법경영팀 (조모)

세아제강

입사
최세웅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출산
함창균 포항공장 안전기획팀
황지섭 포항공장 대경공장
최우혁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조의
김종민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빙부)
신화수 포항공장 중경생산팀 (모친)
김승영 포항공장 안전환경팀 (빙부)

세아베스틸

입사
박순영 단조설비팀
최선을 설비기획팀
정승진 설비기획팀
장범수 설비기획팀
신동원 압연설비팀
유지광 압연설비팀
정민규 제강설비팀
송인수 제강설비팀
김동욱 제강설비팀

결혼
이태진 2제강팀
김창동 소형압연팀
이종현 제강설비팀
장소혜 단조생산팀

출산
강현구 2제강팀

조의
김용진 2제강팀 (모친)
송기영 연주팀 (모친)
문지훈 연주팀 (모친)
고재일 대형압연팀 (부친)

고재영 소형정정팀 (부친)
나준수 설비기획팀 (모친)
서봉석 품질보증팀 (모친)
손용순 안전문화추진단 (빙부)
손승욱 2제강팀 (빙부)
동현우 공정연구2그룹 (빙부)
김동혁 지원본부장 (모친)

세아창원특수강

입사
최진영 3제강팀
이철진 대형압연팀
전두철 소형압연팀
박영진 소형압연팀
정성학 소형압연팀
안승현 산세팀
김승현 제강설비팀
안준석 강관단조설비팀
황인수 시험관리팀

출산
박효근 재무팀
박지만 2제강팀
이동택 산세팀

조의
정상용 (모친)
이갈섭 (빙모)
김경배 (빙모)
장진수 (빙부)
이득희 (부친)

세아특수강

입사
이택선 선재생산팀 산세 (포항)

출산
김무경 봉강생산팀 (충주2)

조의
이강현 대표이사 (부친)
배영두 품질팀 (원주) (모친)

세아씨엠

출산
홍성재 기계정비반

세아 M&S

입사
민지애 재경팀
신예빈 자원팀

출산
최윤성 생산팀

조의
이병찬 구매팀 (외조모)

세아항공방산소재

입사
김동규 가공반
김도영 가공반
권민제 가공반
장현준 압출반

출산
임민규 압출반

조의
이형석 가공반 (부친)
김봉식 가공반 (부친)

세아 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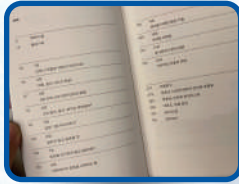
입사
김성주 부산강관영업팀
천푸른 업무지원팀

조의
이창욱 포항물류팀 (조모)
문봉준 군산물류팀 (부친)

세아네트웍스

출산
박상운 경영기획팀

지난 호 Best 텍스트 힙 Reader 책 리뷰



세아베스틸 생산혁신팀 전호성 팀장

결국엔 정직함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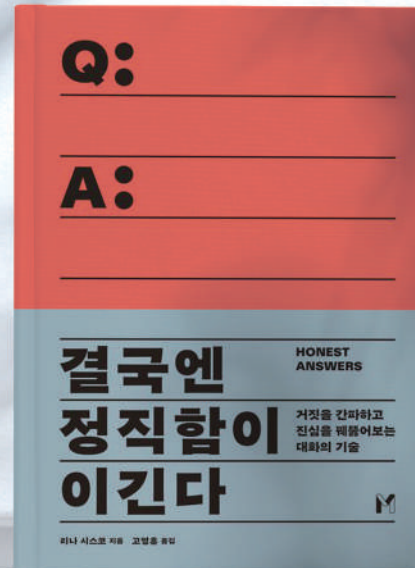
저자: 리나 시스코

[추천 메시지]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 책의 제목을 접하게 됐고, 세아 제1의 가치인 '정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공감을 전달해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 등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돼 있어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원과의 소통이나 피드백에 활용해 볼 수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아이들과의 관계에 적용해볼 만한 내용이 많아 세아인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 읽는 세아' 캠페인
이번 호 **EVENT** 참여 방법

"읽는 순간 '힙해진다!' 독서하는 세아인을 보여주세요!"

- 1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이나 책장, 독서 환경을 촬영한다.
- 2 감명받은 책 속 한 구절을 필사한 후 사진으로 남긴다.
- 3 책 제목, 저자, 추천 이유를 100자 내외(3행 내외)로 작성한다.
- 4 위의 내용을 9월 30일까지 이메일(sujin.hwang@seah.co.kr)로 전송한다.
- 5 'Best 텍스트 힙 Reader'로 선정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는다.

TEXT
-HIP

〈세아가족〉사보 기자

세아제강지주 기업문화팀 이해연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세아베스틸지주 자원팀 김명제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팀 이정화
세아창원특수강 경영기획팀 박수빈
세아특수강 인사팀 변훈규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고은비
세아 M&S 인사팀 김윤정
세아항공방산소재 인사총무팀 한구일
세아 L&S 인사팀 김예슬
세아네트웍스 조직문화팀 박수정
브이엔티지 EX실 김기현

SěAH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